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보혜 '젊은 앞세 사랑나눔미' 300회 봉사활동

2010. 7. 24.(토)

2006년 출범 이래 따뜻한 나눔과 배움 실천

'젊은 앞세 사랑나눔미' 봉사단은 보혜에서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6년 설립한 봉사단체로 보혜 임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 당시 광주, 목포, 순천 등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다 2007년부터는 전주까지 그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부터는 서울까지 지역을 확대해 사회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앞세 사랑나눔미 봉사단은 11기로, 봉사단은 6개월 단위로 각 지역에서 무료로 급식 제공 활동을 펼치는 것을 비롯해 보육 시설 방문 및 위로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 이외에 보혜는 각급 시설에 필요한 물품도 수시로 전달해오고 있다. 쌀과 음료수·육류 등 먹을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하다. 이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연 1억여 원 규모다.

최근 주류업계에는 사회공헌의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 봉사단을 출범해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다면, 주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놓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주류회사들이 전락지역을 뚫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앞세운데 반해 최근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혜는 일회성 보여주기 식 사회공헌을 펼치거나 연말에 기부금 후원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해야 하는 지역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생리라지만, 우리 주변 그늘진 곳을 돌봐야 하는 사회적 책임 역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가 기업 존속의 발판임이 분명하다면, 이윤의 일정 부분 환원은 마땅한 공동체적 사명이었을 터. 보혜는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 낮게, 더 어려운 이들에게 향했다.

출범 이래 300회 봉사활동 실천

젊은 앞세 사랑나눔미 봉사단은 지난 7월 24일 서울,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75명이 동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이날 활동으로 300회를 넘어서게 됐다.

젊은 앞세 봉사단은 300회를 맞아 각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역 봉사단은 '사랑의 쉼터'에서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을 초청, 판소리, 민요, 트로트, 변검마술 공연 등 독거어르신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낸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 '무등육아원' 아이들과 꿈과 희망을 담은 카드를 제작 후 타임캡슐에 담아 매설하

는 등 참신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서울지역 봉사단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저소득 포도농가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는 등 농촌봉사 활동을 실시했으며, 전주지역 봉사단 '안골노인복지회관'과 '평안의 집'에서 독거어르신과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목포와 순천 지역 봉사단은 목포창매교회와 순천YWCA에서 '사랑의 밥퍼' 활동을 하며 이마에 구슬땀을 흘렸다.

보혜 관계자는 "설립 이래 쉬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 어느덧 300회를 맞게 되어 너무 뿌듯하다"며 "규모도 커지도 봉사자도 늘어난 만큼 더욱 열심히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상 수상

또한 젊은 잎새 사랑나눔 봉사단은 지난 7월 21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중앙일보, YTN이 공동 주최한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봉사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 '젊은 잎새 사랑나눔' 봉사단이 응모,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 자원봉사대축제 기간 중 '젊은 잎새 사랑나눔' 봉사단은 '광주 사랑의 식당'에서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과 사랑의 밥퍼 활동을 실시했으며, '행복재활원'의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회적응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는 가족, 시민, 기업, 학생단체 등 전국에서 1,270여개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보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의 성숙...

젊은 잎새 사랑나눔 봉사 활동에는 인기 연인이 함께 해 봉사단원들은 기대치 않은 기쁨을 덤으로 얻기도 한다. 젊은잎새 사랑나눔 홈페이지(www.yipselove.co.kr)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기쁨을 후기로 기록해 놓은 후기들로 가득하다.

"올해는 잎새주 모델 백지영 누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인기인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누나가 꾸밈없이 좋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봉사자 자신의 성숙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황복연 씨의 봉사활동 후기다. "봉사활동 처음 할 땐 남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나를 자각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스스로를 위한 일이란 것을 느꼈었습니다."



김현진 씨도 "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자아성찰이었다"고 고백한다. "원생들 옆에서 관심을 표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우리 애들 이름은 알아요? 이름도 모르면서 왜 친한 척 해요?' 명주 언니는 버럭 화를 냈어요." 김 씨가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한 장애인에게 들었던 핀잔이다. "그 순간 봉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신을 자책했다"고 했다.

하지만 후회뿐일까. 현재 그에겐 더 큰 것이 남아 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배려, 사랑의 방식을 깨우쳤다"는 것.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젊은이들이 보혜의 젊은잎새 사랑나눔을 통해 이렇듯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젊은 잎새 봉사단은 매 기수를 모집할 때 마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